불교인문학살롱

25 매월당 김시습의 불교와 문학



▶ **김대원 작가**는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경영학과 2학년 마치고 군입대해 베트남전 참전, 맹호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JC어패럴을 설립해 운영했다. 〈수필과비평〉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하고 〈월간 신문예〉로 시인으로 등단했다. 제34회 현대수필문학상, 제20회 수필과비평문학상, 제11회 김우종문학상, 제3회 월파문학상, 제13회 탐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수필집 〈백학산의 가을〉 〈먼 산에 달이 오르네〉 〈한 뼘의 볕바라기〉 등이 있다. 현재 하전수필문학아카데미 대표강사,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佛·儒 넘나들며 격외법문 보인 선지식

김시습, 조선시대 천재 문인이자 스님
세종대왕도 시험할 정도로 '신동' 평가
수양대군 왕위 찬탈에 분노, 불문 귀의
설잠 스님으로 살며 법성게註 등 펴내
〈묘법연화경〉 발문 쓰고 무량사서 원적



매월당 설잠 스님(김시습)의 진영. 설잠 스님이 원적한 부여 무량사에 전해지는 진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신동, 5세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조선시대를 살다 간 천재 문인이자, 불교 승려이다. 스스로를 '방외인(方外人)'이라 할 정도로 세상의 격식에 자유로웠으며,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절개를 굽히지 않은 조선의 선비였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능지처참 된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노량진 언덕에 묻었다.

본관은 강릉이며 자는 열경(悅卿)이다. 호는 오세(五歲)·청한자(淸寒子)·동봉(東峯)·벽산청은(碧山淸隱)·췌세옹(贅世翁)·매월당(梅月堂) 등이다. 그는 태어난 지 여덟 달 만에 벌써 글을 알았다고 하며, 최치운(崔致雲)이 기이하게 여겨, '시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말은 느리지만 정신은 경민(警敏)하여 글을 보면 입으로는 읽지 못했지만, 그 뜻은 모두 알았으며, 세 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그는 다섯 살에는 〈중용〉·〈대학〉에 통하였으며, 글짓기도 더한층 진보되었다. 이러한 그의 소문을 들은 정승 허조(許稠)가 그의 집을 방문하여 신동의 실력을 시험해 보았다.

"얘야, 나는 벌써 늙은 사람이라, 노(老)자로 운(韻)을 달아서 시 한 구절을 지어다오."

이에 김시습은 이 같은 시조를 내놓았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았구려.(老木開花心不老)"

세종이 그의 소문을 듣고 승정원에 분부를 내려, 시습을 불러서 지신사(知申事) 박이창(朴以昌)으로 하여금 그의 실력을 시험케 했다.

박이창이 '어린아이의 학문이/흰 학이 푸른 소나무 끝에서 춤추는 것 같아라(童子之學白鶴舞靑松之末)'고 운을 떼자, 시습은 '성스런 임금님의 덕은/누런 용이 푸른 바다 가운데서 번득이는 것 같아라(聖主之德黃龍翻碧海之中)'라고 답했다.

이를 전해들은 세종이 비단 쉰 필을 하사하되, 그의 앞에 포개어 두고 스스로 가져가게 했다.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시습은 곧 어렵게 생각지도 않고, 50필을 풀어 끝과 끝을 묶은 뒤 허리춤에 앞 끝을 묶어서 끌고 대궐 문을 나갔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그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痛忿)하여 나흘 동안이나 두문불출 단식한 뒤,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린 뒤 삭발염의하고 법명(法名)을 설잠(雪岑)이라 하고 긴 방랑길에 올랐다. 자신의 방랑을 호탕한 유람, 즉 탕유(宕遊)라 일컬었던 그의 '놀 유(遊)'자를 붙인 네 권의 책이 〈사유록(四遊錄)〉이다.

나그네(有客)
청평사에 찾아든 나그네가 있어
(有客淸平寺)
봄 산을 멋대로 노닌다.(春山任意遊)
산새 우짖는데 외로운 탑은 고요하고
(鳥啼孤塔靜)
꽃잎이 흘러내리는 작은 시내에 떨어지네.(花落小溪流)
보기 좋은 산나물이 때를 알아 부쩍 자라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온 뒤라 보드랍네.
(香菌過雨柮)
시를 읊으며 걷는데 신선의 마을로 들어서니(行吟入仙洞)
내 일생의 시름을 풀어보리라.
(消我百年憂)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하다가 오봉산 청평사에 이르러 쓴 시이다.

그는 자신의 이상인 충의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렸지만, 결코 현실에 관심을 거둘 수는 없었다. 한 가지 사상에만 빠지지 않았던 김시습은 유교, 불교, 도교를 넘나들며 불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되는 〈금오신화〉를 보면 '남염부주지'에서 송유이학(宋儒理學)의 입장에서 세속화된 기복 불교와 제례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고 선불교의 높은 수행 단계를 추구했다.

설잠 스님의 법성게(法性偈) 해

설잠 스님은 의상 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에 주병서(註并序)를 달았다. 화엄종조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요지를 7언절구 210개의 한자를 회전·굴곡시켜 원융한 법계 하나의 해인(海印) 형태를 완성했다. 그것은 마치 대해(大海) 속에 일체 사물의 모습이 도장을 찍듯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듯이 맑고 고요한 삼매 속에 일체의 진상(眞相)이 드러남을 뜻한다. 이 도인(圖印)은 '법성원융무이상'의 법에서 시작하여 '구래부동명위불'의 해인삼매 총상인(總相印)이 된다. 법성(法性)에 의한 해인삼매를 나타내는 시게(詩偈)이기 때문에 이를 법성게(法性偈)라고도 한다.

〈화엄일승법계도주(華嚴一乘法界圖註)〉를 보자.

"깨달음보다 더 나아간(向上) 길은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하니 이미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라면 이러한 법계(法界)의 그림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가령 종으로 횡으로 구불구불함과 글자와 점들이 얼룩덜룩한 것이 이 그림인가?(…)의상 법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움직여가며 자비심을 드리워서 중생들을 이롭게 함이 이 그림인가? 가령 조짐이 아직 싹트지 않고 그릇이 미쳐 형상을 이루지 아니하였을 적에 벌써 이 그림인가?"

설잠 스님은 "낚싯바늘 드리운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오인하지 말라"고 했다. "조짐이 싹트지 않고 명기(名器)가 미쳐 형(形)을 이루지 아니하였을 적에 벌써 도(圖)인 것인가"라는 구절에 이르러 이는 미발(未發), 미생전(未生前)의 '부모 미생 전 본래면목(本來面目)'의 자리를 물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또한 낚싯바늘 드리운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오인하지 말라고 한 구절에서는 설잠 스님이 백담사에서 주(註)를 단 〈십현담(十玄談)〉의 〈열경주(悅卿註)〉와 동안 상찰 스님의 시구를 떠올리게 한다.

묻노니 심인(心印)은 어떻게 생겼기에/심인을 누가 감히 전수한다 하는 거랴.(…)무심無心이 곧 도(道)라고 이르지 말라./무심도 한 겹의 관문, 격(隔)하고 있느니라.

—동안 상찰 스님의 〈1. 심인〉에서

동안 상찰 스님께서 '무심(無心)의 집착을 경계한 것은 설잠 스님이 '눈금의 표식을 오인말라'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처럼 무심이 본래 도(道)이건만, 도를 도라고 이르는 순간 그것은 머리 위에 머리를 다시 보태는 격이 된다. 모두 본질을 바로 보라는 말씀이다. '십현(十玄)'이란 선(禪)의 오묘한 취지를 10가지 면에서 노래한 것으로 선시의 백미라 할 만하다. 설잠 스님의 높은 안목과 선지(禪旨)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설잠 스님은 59세에 부여 무량사에서 〈묘법연화경〉 발문을 쓰고 그곳에서 원적에 드셨다. 스님은 입적에 들면서 승려들에게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땅속에 3년 동안 묻어둬라. 그 후에 정식으로 화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원한 대로 시신을 땅에 묻었다가 3년 후에 무덤을 파헤치니,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다고 한다.

어느 날, 고즈넉한 절 무량사 일주문 앞에서 나는 합장한 채 걸음을 멈췄다. 천왕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또 한 번 걸음을 멈추고 문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처마처럼 가지를 늘어뜨린 소나무 아래로 석등(보물 제233호) 등 국가 지정 보물들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영정각에 있었다. 서너 번이나 무량사 탐방을 한 나는 늘 그랬었다. 영정각에 모신 초상은 가슴까지 그린 반신상인데, 머리에는 중절모처럼 생긴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 나는 대시인께 성심으로 합장배례를 드리고 무량사로 오르기 전, 부도(浮屠)들이 서 있는 무진암 쪽으로 갔다. 일제강점기에 폭풍우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도도 무너졌는데, 그때 나온 사리 1점은 지금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천왕문 밖 언덕에는 1983년 문인들이 세운 매월당 시비가 서 있다.

시비(詩碑) 앞에 서니 설잠 김시습의 '낙엽'이라는 시 한 수가 떠올랐다.

떨어지는 잎이라고 쓸지를 마오/맑은 밤에 그 소리 듣기 좋다오.
바람이 불어오면 서걱서걱 소리 나고/달이 떠오르면 그림자 어수선해라.
창을 두드려 나그네 꿈 깨우기도 하고/섬돌에 덮여 이끼 무늬도 없애네.
빗줄기 선 듯하면 어찌할 수 없기에/먼 산에 그 모습 한껏 여위었어라.

수척한 노사(老師)의 모습이 공적(空寂)하다.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 '창을 두드려 나그네 꿈 깨우기도 하고 섬돌에 덮여 이끼 무늬도 없애네' 이 대목에서 나는 꿈 깬 자의 자각과 마음에 이끼 무늬도 없는 무심(無心)을 읽게 된다. 그분의 오도송같이 느껴진다. 청한(淸寒) 비구 설잠 시비 앞에서 그날 나는 쉽게 자리를 떠나올 수 없었다.〈끝〉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실 설악 무산
기도 석상 본수 지봉 선우
주지 일념
부주지 향성
총무 본일
기획 설호
호법 각일
사회 서원
템플스테이연수원장 선일
템플스테이연수국장 지월
무산문도문장 삼조
홍련암 원주 관진 공산 동현
신도회장 방양호
관음회장 반순덕
바라밀회장 박상혁
합창단장 장필순
의상회장 이순애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